



# 미국 감독당국, 보험료 최적화 산출과정 규제

이해량 연구원

## 요약

■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봄 정기 총회에서 손해보험가격 차별금지를 규정한 백서를 채택하여 규정에 반영할 예정임. 최근의 보험가격 최적화는 빅데이터 기법에 근거하여 계리적 위험요인만을 반영하던 전통적인 기법과 달리 비계리적 위험요인까지 반영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은 소비자에게 가격 차별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미국 감독당국은 보험가격 최적화 적용 시 소비자의 비계리적 위험요인 반영을 금지하고, 동일 위험군에는 동일 보험가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봄 정기 총회에서 보험가격 차별금지를 규정한 보험가격 최적화(Price Optimization) 백서<sup>1)</sup> 채택을 고려하고 있음.

● 2016년 봄 총회에서 NAIC는 손해보험 계리 및 통계 태스크 포스가 작성한 보험가격 최적화 백서를 각 주의 보험가격규제에 반영할 예정임.

■ 최근 미국 보험회사는 빅데이터<sup>2)</sup> 기법에 근거한 새로운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고 있음.

● 최신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은 계약자별 계리적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비계리적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상이한 보험료를 결정하는 모형으로 매우 복잡한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이 요구됨.

- 가격 최적화는 정교화된 도구나 모델을 사용하여 마케팅 목표, 수익성, 보험계약 유지 등의 사업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전통적인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은 언더라이터나 계리사가 인정하는 계리적 위험요인들을 토대로 보험가격을 결정함.

1) NAIC(2015. 11), "Casualty Actuarial and Statistical(C) Task Force Price Optimization White Paper".

2) 정형화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플랫폼, 분석 기법 등을 포괄함(강만모 외(2012),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정보과학회지』, 30(6)).

■ 최신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이 보험회사에 주는 장점은 보험가격 책정에서 안정성 및 비용 절감, 맞춤형 가격 제공을 통한 소비자 효용 제고 등이 있음.

- 보험가격 최적화는 정교화된 모델을 사용하고, 소비자가 보유한 위험에 적절한 보험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 및 운영 안정성 등의 효용이 있음.

■ 그러나 동 보험가격 최적화 기법은 가격 차별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가격 최적화 과정에 소비자의 비계리적 위험요인이 포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비계리적 위험요인이란 소비자들의 보험상품정보에 대한 탐색 성향<sup>3)</sup>, 보험계약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료 수준<sup>4)</sup>, 기존계약 유지성향, 민원제기 수준 등을 말함.
- 비계리적 위험요인이 포함될 경우 시장에서 구매력 및 탐색 성향이 낮은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미국 보험감독당국은 보험가격 최적화 적용 시 차별을 유발하는 비계리적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입력을 금하여, 동일 위험군에는 반드시 동일한 보험가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각 주 보험감독당국은 보험가격 최적화 과정에 보험수요 탄력성, 보험상품정보 탐색 성향, 보험계약의 보유 및 이동, 보험소비자의 민원 및 질문 성향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함.
- 또한 NAIC는 보험회사가 보험가격 최적화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 내용과 데이터 수집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함. [kiri](#)

3) 소비자가 보험상품 구매결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정보 탐색 채널, 탐색 빈도, 정보 접근성 등이 포함됨.

4) Willingness to pay(지급용의)의 의미로 보험상품 구매 시 소비자가 지급하고자 하는 최대 보험료를 의미함.